

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역할어의
대조언어학적 분석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

A Study of Role Language in the Korean Subtitles of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이윤옥 (Yoonok Lee)*

ABSTRACT: This paper is the continuation by Lee (2021), and is a Korean-Japanese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focusing on the disappearance of so called ‘yakuwarigo’ (role language) in subtitle translations. The element lost in the translation subtitles is information that cannot be conveyed when studying foreign language through the use of subtitles, or when simply enjoying a cinematic production. This paper uses as its materials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role language’ that appear in the Japanese film *Let Me Eat Your Pancreas* and the Korean subtitles that correspond to them. Firstly, it surveys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role language’ that was previously revealed in earlier research. Then, it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in sentence final expressions and personal pronouns and honorific use which are indicators of ‘role langu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entence final expressions and first-person pronouns of the ‘role language’ elements were hardly reflected in subtitl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both languages. On the other hand, it became clear that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were expressed in the use of honorifics.

KEYWORDS: role language, subtitle translation, sentence final expressions, first-person pronoun, honorifics, lost elements

1. 들어가기

공간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풍부한 정보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와 접목한 훌륭한 콘텐츠는 글로벌화의 확산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다. 아울러 자막 번역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는 동시에 중요성 또한 강조되는 실정이다.

자막번역은 영상번역의 한 장르로 텍스트번역에 비해 기술적·물리적 제약을

* Professor of Cognitive Linguistics, Faculty of International Studies, Kindai University. E-mail: leigh@intl.kindai.ac.jp

받는다. 또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막의 글자수에 제한이 생겨 원래 대사의 43%가 손실된다¹. 이러한 기술적·물리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생기는 손실 외에 언어·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자막에서 상실되는 요소도 적지 않다. 이들 요소는 자막을 이용한 자율적 외국어 학습이나 영상 작품을 즐길 때는 놓칠 수밖에 없는 정보가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 영화의 대사가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실되는 역할어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².

이 결과물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일본어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역할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가 되고 ‘한일 영상 번역 기술’의 향상에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2. 역할어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

‘역할어’는 킨스이(金水)(2000)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물상과 관련된 말투를 말한다. 킨스이(金水)(2003)에서는 역할어를 다음 (1)과 같이 정의한다.

- (1) ある特定の言葉遣い(語彙・語法・言い回し・イントネーション等)を聞くとき特定の人物像(年齢・性別・職業・階層・時代・容姿・風貌・性格等)を思い浮かべることができる時、あるいはある特定の人物像を提示されると、その人物がいかにも使用しそうな言葉遣いを思い浮かべることができる時、その言葉遣いを「役割語」と呼ぶ。

(어떤 특정한 말투(어휘·어법·말주변·억양 등)를 들으면 특정 인물상(나이·성별·직업·계층·시대·용자·풍모·성격 등)을 떠올릴 수 있을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인물상이 제시되었을 때 그 인물이 자못 사용할 것 같은 말투를 떠올릴 수 있을 때 그 말투를 ‘역할어’라 한다.³)

-킨스이(金水)(2003:205)

즉, 특정 말투와 특정 인물상의 대응관계로 역할어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어떤

¹ 이윤옥 (2020) 참조.

²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8 년 제 41 회 아카데미상 (신인배우상, 화제상 (작품 부문) 을 수상한 일본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원제목『君の膵臓を食べたい』) 의 일본어 대사와 한국어 자막이다. 이 분석 자료는 필자의 강의 과목 ‘한일 영상 번역’에서 수업 자료로 활용하면서 수강생들과 토론을 거친 실전 결과물이기도 하며, 이윤옥 (2021) 의 「한·일 자막번역에 나타나는 필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³ 본고의 인용문에 대한 한국어 대역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

말이 ‘역할어’가 되려면 먼저 그 말을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어떤 특정한 언어 의식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며, 또 서로가 그 말에 대해 ‘~답다’라고 인식함으로써 그 말이 ‘역할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할어는 상징적 기능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상징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어에 대해 야마구치(山口) (2018) 는 다음 (2)와 같이 밝히고 있다.

- (2) 役割語は、フィクションの語りという極めて特殊化されたコンテキストこそが、典型的な生起環境となる。これは、一見したところ、不思議なことに思えるかもしれないが、むしろ当然のことである。役割語は話者本来の言葉ではない。役割語は他者性の記号である。だから、フィクションの語りという特殊化された架空のコンテキストがもっとも肌になじむのだ。(허구의 이야기라는 지극히 특수화된 콘텍스트야말로 전형적인 역할어의 생기(生起) 환경이 된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역할어는 화자 본래의 말이 아니다. 역할어는 타자성의 기호다. 그래서 허구의 이야기라는 특수화된 가공의 콘텍스트가 가장 잘 어울린다.)

-야마구치(山口) (2018:44)

역할어는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픽션이라는 가공의 콘텍스트와 조화를 이루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할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픽션이라는 것이다. 온즈카(隱塚)(2018)의 다음 (3)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3) 真田・ロング(1992:73)によると、言語には単に相手に情報を伝えるだけの「情報機能」のほかに「象徴的機能」がある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中でも、特に日本語は「博士語」や「お嬢様語」といった役割語的要素が強く表れる言葉遣いが広く浸透しており、その象徴的機能が小説やシナリオ、マンガに至るまで、読者の人物像認識に大いに活用されている。(사나다(真田)·롱(ロング)에 따르면, 언어에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기능’ 외에 ‘상징적 기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어는 ‘박사어’나 ‘아가씨말’이라고 하는 역할어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말투가 넓게 확산되어 있어, 그 상징적 기능이 소설이나 시나리오, 만화에 이르기까지 독자의 인물상 인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온즈카(隱塚)(2018:52)

즉, 언어의 ‘상징적 기능’인 역할어가 영화나 만화와 같은 대중문화 작품에 이용되어 관객의 인물상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어를 특징지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카네다(金田)(2008)는 다음 (4)와 같이 언급하였다.

- (4) 役割語は日本語だけにとどまらず、他言語にも見られる。日本語の役割語は、人称代名詞や語尾によって特徴付けられることが多く、中国語や韓国語にもこの手法は観察される。

(역할어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어의 역할어는 인칭대명사나 어미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어나 한국어에서도 이 수법은 관찰된다.)

-카네다(金田)(2008:86)

(4)로 인해 역할어라는 언어적 특징이 한국어에도 존재하는 것과 동시에 역할어를 특징지을 수 있는 지표가 인칭대명사와 문말표현임을 알 수 있다.

정혜선(鄭惠先)(2018)은 대중문화 작품에서 차지하는 역할어의 비중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역할어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음(5)와 같이 지적하고 있다.

- (5) サブカルチャーの中の日本語は、いわゆる「役割語」といわれる表現形式が中心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中略) 上級レベルの韓国人日本語学習者であっても日本語役割語に対する認識は、日本語母語話者に比べて著しく欠如していることがわる。これは、母語を問わず日本語学習者全般に見られる傾向であるが、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場合、母語の韓国語に役割語的な要素が日本語ほど豊富でないことも二次的な要因になると考えられる。(서브컬처 안의 일본어는 이른바 ‘역할어’라 불리는 표현 방식이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상급 수준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라도 일본어의 역할어에 대한 인식은 일본어 모국어 화자에 비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국어를 불문하고 일본어 학습자 전반에서 볼 수 있는 경향이지만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경우는 모국어인 한국어에 역할어적인 요소가 일본어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점도 이차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선(鄭惠先)(2018:7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대중문화 작품에서 차지하는

역할어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과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의 역할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한일 양국어의 어휘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일 번역 작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본어에 사용된 역할어가 한국어 번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⁴. 한국어의 역할어적 요소가 일본어에 비해 풍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번역상의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자막 번역에서는 캐릭터의 설정에 따라 최대한 역할어의 대응 요소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할어가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성격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할어의 기능에 대해 킨스이(金水)는 다음 (6)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6) さらに大事なことは、これらの言語変種は自分が使用するものばかりではなく、むしろ認識はできるが自分では使用しないという変種の方がはるかに多いのである。しかもそういった変種を理解できなければ社会的生活に支障を来し、小説、映画、漫画、アニメ等のフィクションを楽しむこともできな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 변종은 자신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식은 할 수 있지만 스스로는 사용하지 않는 변종이 훨씬 많다. 게다가 그러한 변종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적 생활에 지장을 받고, 소설·영화·만화·애니메이션과 같은 픽션을 즐길 수도 없다.)

-킨스이(金水)(2011a:38)

(6)에서 말하는 언어 변종은 역할어적 요소를 가리키는 동시에, 가령 외국인이 일본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픽션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는 역할어의 습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역할어의 역할에 대해 다음 (7)과 같이 밝히고 있다.

- (7) 役割語を適切に使用すれば、人物像や情景や作品の意図までもが、極めて効率的に表現されるであろうし、また読み手は、そういった面での安定感を求めている。

(역할어를 적절히 사용하면 인물상이나 정경, 그리고 작품의 의도까지도 지극히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안정감을 요구한다.)

⁴ 다무라 유리에(2015), 사사 히로코(2017) 등과 함께 필자의 '한일영상번역' 수업에서도 확인되었다.

역할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말은 자막 번역에서 원작에 나타나는 역할어의 대응 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관객들에게 등장인물의 역할이나 성격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까지도 와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할 때는 성별이나 연령, 심지어 성격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말투가 다른 캐릭터의 설정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처음부터 맞는 말투를 설정한 후에 번역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3. 연구 과제의 분석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막 번역에서 상실되는 요소 가운데 다음 세 가지를 연구 과제로 설정한다.

- ① 자막에 반영되어 있는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살펴본 후에 역할어의 지표인 문말표현에 초점을 맞춰 자막에서 상실된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분석한다.
- ② 역할어의 지표인 인칭대명사의 일인칭 대명사에 초점을 맞춰 자막에서 상실된 언어·문화적 요소를 분석한다.
- ③ 한일 양국어의 경어법 차이로 인해 한국어 자막에서 상실된 언어·문화적 요소를 분석한다.

3.1. 자막에 반영되어 있는 여주인공의 캐릭터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사쿠라는 ‘원만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예쁘고, 용기 있는 소녀’로 그려져 있음을 【자료 1】로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1】: 【자료 1】의 ①에서는 사쿠라가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②에서는 친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심’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③에서는 ‘예쁜 소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④에서는 주위의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는 사쿠라의 ‘용기’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급에서 누구 한 사람 교코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교코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처지에 놓인 반 친구에게 웃으며 말을 건넨다는 것은 여간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주인공의 캐릭터는 ①원만한 성격의

소유자 ②배려심 있는 좋은 친구 ③예쁜 소녀 ④용기 있는 학생이 된다.

【자료 1】 자막에 반영되어 있는 여주인공 캐릭터의 분석 자료 (밀줄 필자)

No	발화자	일본어 대사	한국어 자막
①	반장	はいはいはい。もういいだろうそんなことどうでも。山内さんは皆と仲良いわけだし、たまに会ってお茶しただろう。な?	그만들 해. 그게 다 뭐 상관이야? 사쿠라는 모두랑 친하잖아. 어찌다 차 한 잔 마셨겠지. 그렇지?
②	하루키	僕なんかというより大切な友達と残り少ない時間を過ごすことの方が価値があると思う	나 따위하고 있기보다 남은 시간을 소중한 친구와 함께하는 게 가치가 있을 걸.
	사쿠라	いいの、いいの。あの子、感傷的だから言ったらきっと会うたびに泣いちゃう。そんな時間お互い楽しくないでしょ。彼女のためにもあたしのためにもぎりぎりまで周りに隠しておきたいの。	괜찮아. 개가 워낙 감상적이라 병을 알게 되면 만날 때마다 울 거야. 그런 시간은 서로 즐겁지 않잖아? 개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거의 마지막까지 주위엔 비밀로 할 거야.
③	사쿠라	うちのクラスで誰が一番かわいいと思う?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쁜 거 같아?
	하루키	いきなり何を言い出すの、君は。僕は、人を見た目で判断しないんだよ。	무슨 질문이 그래?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사쿠라	見た目のことを聞いているの。誰が一番かわいい?	그 외모에 대해 묻는 거야 누가 제일 예뻐?
	하루키	あの、数学が得意な子かな。	그러니까... 수학 잘 하는 애.
	사쿠라	ひな? 私じゃないんだ~。ひなが一番としてあたしは何番目?	히나? 내가 아니었네. 히나가 제일 예쁘다면 나는 몇 번째야?
	하루키	あくまで、僕が顔を思い出せる人間に限りだけど、3番。	내가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지만 세 번째.
	사쿠라	は、めちゃくちゃ恥ずかしい~。	창피해서 쓰러지겠네.
④	쿄쿄	私、中学校の時、友達なんていなかった。けど、桜良だけはいつだって笑って話しかけてくれた。桜良がいなかったら私はひとりだった。	나는 중학교 때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사쿠라만 늘 웃으며 말을 걸어 줬지. 사쿠라가 없었으면 난 외톨이었을 거야.

3.2. 자막에서 상실된 여주인공의 캐릭터

3.1.에서는 자막에 반영되어 있는 여주인공의 캐릭터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역할어의 지표인 ‘문말표현’에 초점을 맞춰 자막에서 상실된 여주인공 사쿠라의 캐릭터를 살펴본다. 문말표현의 역할어를 분석하기 위해 추출한 것이 다음 【자료 2】이다. 자료 안의 굵은 글씨는 일본어 대사의 역할어와 그 한국어 자막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2】 역할어의 지표인 ‘문말표현’의 분석 자료

No	발화자	일본어 대사	한국어 자막
①	사쿠라	他人に興味が無いなんてもったいない。そうだ、君はこれでも読んで勉強 したまえ 。私のだけど特別に貸してあげます。はい。	남에게 흥미가 없다니 아까워. 그래 넌 이거라도 읽고 공부 좀 해 . 내 책인데 특별히 빌려줄게. 받아.
②	사쿠라	真実なら、私のかawaiiところを3つ あげたまえ 。挑戦なら、私をベッドまで運んで。	진실이라면 나의 예쁜 점을 세 개 말하기 . 도전이라면 나를 침대까지 옮기기.
③	쿄코	でも条件がある。	근대 조건이 있어.
	사쿠라	なんなりと 。	뭐든지!
	쿄코	お土産買って帰ること。 無事に帰ってくること。	선물 사서 오기. 무사히 돌아오기.
④	사쿠라	君、先生に なりなよ 。	너 나중에 선생님 해라 .
	하루키	え？	뭐?
	사쿠라	だって教えるのうまいし。	가르치는 소질이 있어.
⑤	사쿠라 편지	(恭子,) 大好きだった。幸せになってね。素敵な旦那さんとかわいい赤ちゃんを産んで、誰よりも幸せな家庭を 作るんだよ 。	(쿄코,) 정말 즐거웠어. 행복하게 지내. 멋진 남편 만나서 예쁜 아가 낳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렴 .

【분석 결과 2】 : 【자료 2】의 ①과 ②에 사용된 ‘たまえ[tamac]’는 존경의 동사 ‘たまう(lit. 주시다·내리시다)’의 명령형으로 고어체이며, 한국어로는 ‘...하게’가 된다. 이 표현은 주로 나이든 남자가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가벼운 요청이나 부드러운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접미사이다. 여기서 ‘たまえ[tamac]’라는 역할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인공의 캐릭터를 ‘반 친구들에 비해 어른스러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③에서 사용한 ‘なんなりと’

[nannarito]' 는 정중한 인상을 주는 말로 황공해야할 필요가 없는 친구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말인 동시에 어른들의 말이다. 친구에게는 'なんでも [nandemo](lit. 뭐든지)' 로 바꾸어 쓰는 것이 맞다. 여기서 어른들이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을 이용한 것은 '어른스러운 캐릭터'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어 ④에서 사용된 '~なよ[~nayo]' 는 '친한 사람에 대해 가벼운 명령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며, 여고생이 사용할 경우는 '조금 어른스러운 젊은이말'이 된다. 여기서도 여주인공 사쿠라가 '반 친구들에 비해 어른스럽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역할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①~④와는 달리 ⑤는 한국어의 역할어적 요소가 적용된 유일한 자막이다. 이 '~んだよ[~undayo](lit. ...렴)'는 상대방보다 그 위치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특히 어른이 아이에게 당부하거나 타이를 때, 또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쓰는 말이다. 여기서도 사쿠라가 친구인 료코에게 엄마가 딸에게 당부하는 듯한 말투의 역할어를 사용함으로써 극 중의 여주인공을 '꽤 어른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자막에서 '~렴'은 일본어에 비해 풍부하지 않은 한국어의 역할어가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2】를 통해 여주인공 사쿠라의 캐릭터는 【분석 결과 1】에서 제시한 ①~④에 '의젓하고 어른스러움'이 더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에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말이나 행동이 점잖은 언니 같은 존재가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사쿠라는 그런 학생일지도 모르겠다. 여주인공 사쿠라의 '의젓하고 어른스러움' 캐릭터가 자막에서 상실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3.3. 역할어의 지표인 '인칭대명사'의 분석

3.2.에서는 역할어의 지표인 '문말표현'에 나타나는 역할어를 살펴보았으나, 본절에서는 또 하나의 지표인 인칭대명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일본어의 인칭대명사는 종류⁵도 많을 뿐더러 그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자신과 상대의 위치나 사정을 고려해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결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어의 일인칭 대명사의 용법에 대해 미즈타니 (水谷) (1983)는 다음 (8)과 같이 밝히고 있다.

- (8) 日本語には自分のことを指すことばがいろいろある。「わたくし」、「わたし」は男にも女にも使われるが、「ぼく」、「おれ」は男に、「あたし」は女に使われている。男が「わたし」を使うときは、あらたまった時である。それ

⁵ <http://bun.natubunko.net/kotoba/firstperson/참조>

にくらべ、女は「わたし」を一番くだけた時にも使っている。男は、くだけた時のことばとして、「ぼく」や「おれ」を持っている。「わたくし」や「わたし」はフォーマリティーの度合の高いことばだが、男はそれをあらたまった時だけに使っている。それにくらべ、女は「わたくし」、「あたくし」、「わたし」、「あたし」と、いずれも「わたくし」が少しくずれた形だけを使っている。つまり、自分を指しているとき、女の方がフォーマリティーの高いことばを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事実、日常の会話で最もよく聞かれるのは、男の「ぼく」に対し、女の「わたし」であり、このフォーマリティーの差が男と女の丁寧さの差になっている。

(일본어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 있다. ‘わたくし[watakushi](=저)’ ‘わたし[watashi](=나)’는 남녀 모두가 사용하지만 ‘ぼく[boku](=나)’와 ‘おれ[ore](=나)’는 남자가 사용하고, ‘あたし[atashi](=나)’는 여자가 사용한다. 남자가 ‘わたし[watashi](=나)’를 사용할 때는 격식을 차릴 경우이다. 그에 비해 여자는 ‘わたし[watashi](=나)’를 허물없는 대화에도 편하게 사용한다. 남자가 스스로없이 사용하는 말로서는 ‘ぼく[boku](=나)’와 ‘おれ[ore](=나)’를 들 수 있다. ‘わたくし[watakushi](=저)’나 ‘わたし[watashi](=나)’는 포멀리티(formality)의 정도가 높은 말이지만, 남자는 이 말을 격식을 차려야 할 때만 사용한다. 이에 비해 여자는 ‘わたくし[watakushi](=저)’ ‘あたくし[atakushi](=저)’ ‘わたし[watashi](=나)’ ‘あたし[atashi](=나)’를 사용하는 데, 모두 ‘わたくし[watakushi](=저)’가 약간 변형된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여자 쪽이 포멀리티의 정도가 높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일상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듣는 것은, 남자의 ‘ぼく[boku](=나)’와 여자의 ‘わたし[watashi](=나)’이며, 이 포멀리티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정중함의 차이가 되고 있다.)

-미즈타니(水谷)(1983:177)

일본어의 일인칭 대명사는 성별은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 용법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8)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문법의 일인칭을 나타내는 명칭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일인칭을 나타내면서 다른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인물상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예로서 다음 (9)를 들 수 있다.

(9) a. そうよ、あたし[atashi]が知ってるわ。

(lit. 그래요, 내가 알고 있어요.)

- b. そうですわよ、わたくし[watakushi]が存じておりますわ。
(lit. 그래요, 제가 알고 있어요.)
- c. そうだよ、ぼく[boku]が知ってるのさ。
(lit.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라니까.)
- d. そうだよ、おれ[ore]が知ってるぜ。
(lit. 그래, 내가 안다니까.)
- e. そうじゃ、わし[washi]が知っておる。
(lit. 그래, 내가 알고 있지.)

—킨스이(金水)(2011b:170)(밑줄 필자, 일부 변경)

(9a)는 (일반) 여성, (9b)는 (교양 있는) 아가씨, (9c)는 젊은 남자, (9d)는 중년 남성, (9e)는 노년 남성의 인물상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8)과 (9)를 감안하여 현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일인칭 대명사를 정리하면 다음 (10)-(12)와 같다.

(10) 남성어로서의 일인칭 대명사

- ① 僕[boku] : 주로 성인 전의 소년이 사용하는 말.
- ② 俺[ore] : 주로 중년 남성이 사용하는 말.
- ③ 儂[washi] : 주로 노년 남성이 사용하는 말.

(11) 여성어로서의 일인칭 대명사

- ① あたし[atashi] : 주로 여성이 사용하며 私(わたし)[watashi] 보다 소탈한 말.
- ② あたい[atai] : あたし[atashi]의 변환말로 화류계 여성이나 여자 아이가 사용하는 말.

(12) 성별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일인칭 대명사

- ① 私(わたし)[watashi] : 私(わたくし)[watakushi]의 변환말로 남녀 다 같이 쓰는 가장 일반적인 말.
- ② 私(わたくし)[watakushi] : 私(わたし)[watashi]보다 약간 격식차린 말.
- ③ 自分[jibun] :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

이에 비해 일인칭 대명사가 두 단어⁶ 밖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로 위의 (10)~(12)를 대역하면 (12)②의 ‘私(わたくし)[watakushi](lit. 저)’를 제외하면

⁶ ‘나’와 ‘저’로, 후자는 전자의 겸양어이다. 일인칭 복수형으로는 ‘우리’와 ‘저희’가 있는데 후자는 전자의 겸양어이다. 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나 본관(本貫)을 사용하는 등의 특수한 일인칭 대명사는 여기서 제외시켰다.

모두 ‘나’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어의 일인칭 대명사는 한일번역에 있어 하나의 장애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본어의 일인칭 대명사는 픽션 작품에 나타나는 화자의 인상을 크게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별이나 연령 심지어 성격의 측면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작품에 나타나는 일인칭 대명사는 다양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요 등장인물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일인칭 대명사는 한정되어 있다.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남녀 주인공의 일인칭 대명사가 자막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막에서 상실된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안의 **굵은 글씨**는 일본어 대사와 그 한국어 자막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3】 역할어의 지표인 ‘일인칭 대명사’의 분석 자료

No	발화자	일본어 대사	한국어 자막
①	하루키	僕は 他人に興味が無いんだよ。 君がってことじゃなくてさ。	난 남한테 관심이 없어. 너라서가 아니라.
②	하루키	僕は誰とも関わらないことで 自分 の領域を守ってきたから。	난 남과 관계를 안 맺는 걸로 내 영역을 지켜 왔거든.
③	사쿠라	その君って呼び方おもしろいよ ね。 私 もマネしよう。	네가 날 ‘키미’라고 부르는 거 재미있어. 나 도 그렇게 불러야지.
	사쿠라	そんな時間お互い楽しくないでし よ。彼女のためにも あたし のため にもぎりぎりまで周りに隠してお きたいの。(……)ひなが一番とし て あたし は何番目？(……) あた し 、元カレがいたっていったでし よ？(……) あたし 、生きたい。大 切な人たちの中で。(……)	그런 시간은 서로 즐겁지 않잖아? 개를 위해서도 나 를 위해서도. 거의 마지막까지 주위엔 비밀로 할 거야。(……) 히나가 제일 예쁘다면 나 는 몇 번째야？(……) 나 , 남친이 있었다고 말했지? (……) 나 는 살고 싶어. 소중한 사람들 속에서。(……)

【분석 결과 3】 : 이미 살펴보았듯이 일본어의 일인칭 대명사는 종류와 기능이 다양하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는 일인칭 대명사가 남성어와 여성어에서 각각 두 종류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①의 ‘僕[boku]’는 성인 전의 소년어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그런 제한 없이 ‘나’로 통일된다. ②의 ‘自分[jibun]’은 명사 용법 외에 남녀노소 전 세대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일인칭 대명사지만, 한국어에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명사 용법만 있을 뿐이다. 이 점은 한일 양국어의 언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③의 ‘私(わたし)[watashi]’는 일본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위의 (12)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일인칭 대명사로 분류하였으나 위의 (8)로 알 수 있듯이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는 제약이 따른다. 즉, 남성이 ‘私(わたし)[watashi]’나 ‘私(わたくし)[watakushi]’를 사용할 때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공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결과적으로 일본어 대사에 출현한 4 종류의 일인칭 대명사가 한국어 자막에서는 일률적으로 ‘나’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 즉, 성별과 세대를 나타내는 일본어 일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기능이 자막에서 상실된 요소가 된다.

3.4. 한일 양국어의 경어법 차이로 인해 한국어 자막에서 상실된 요소

본 절에서는 일본어의 반말체 대사와 자막 번역에서의 한국어 경어체 자막을 추출하여 한일 양국어의 언어·문화적 상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어를 선택할 때는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나 이야기를 듣는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쓰는 언어표현이다. 한일 양국어는 경어법이 발달된 언어로 경어 자체의 질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경어의 운용면에서는 적잖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한국어의 경어가 절대경어인 테 비해 일본어의 경어는 상대경어라는 점이다. 즉, 한국어는 상하관계라는 이른바 종적관계에 따라 경어를 운용하고, 일본어는 친소관계라는 이른바 횡적관계에 따라 경어를 운용한다.

일본어 경어의 친소관계와 한국어 경어의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경향에 대해 백동선(白同善)(1993)은 다음 (13)과 같이 밝히고 있다.

(13) 日本では子供が両親に対して(あるいは関して)敬語を用いることは普通しない。戦前の日本では身内でも目上の人に対しては敬語を用いるという習慣があったことは当時の映画の会話などから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し、今日の日本でもそのような敬語行動を家風としている家庭もないわけではないそうだが、今日の一般の家庭では身内で敬語を使うことはまずないといいいいであろう。これは、上下関係よりも身内か身内でないか、あるいは親しいか親しくないかといった親疎関係の方が重要視された結果であ

⁷ 하루키의 대사에 출현한 일인칭 대명사는 ①외에 28 회가 더 나타났으며, 사쿠라의 대사에 출현한 일인칭 대명사는 ③외에 30 회가 더 나타났다. 물론 자막에서는 ‘나’가 적용되었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る。これに対して韓国では、相手が身内であっても目上の人であれば必ず敬語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むしろ、上位者に対する敬語は身内であるほど厳しく、例えば父親のことを独り言で言う場合でも敬語を用いるほどである。これは、韓国では儒教の伝統が強く残っていて、その精神が家族・親族内部の言語行動をはじめ様々な行動様式を強く律しているからである。

(일본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보통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에서는 가족이라도 윗사람에게는 경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당시의 영화 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일본에서도 그와 같은 경어행동을 가풍으로 삼는 가정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 사이에 경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이것은 상하관계보다 가족인지 아닌지, 혹은 친숙한 사이인지 소원한 사이인지가 기준이 되는 친소관계가 더 중요시된 결과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방이 가족이라도 윗사람이면 반드시 경어를 써야 한다. 오히려 윗사람에 대한 경어는 가족일수록 엄격하다. 예를 들어 부친을 혼잣말로 하는 경우에도 경어를 사용할 정도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고, 그 정신이 가족·친족 내부의 언어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행동양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백동선(白同善)(1993:196)

일본에서는 가족인지 아닌지, 또는 관계가 친한지 소원한지가 경어 사용의 기준이 되고,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기준이 되어 윗사람에게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이 교사에 대한 경어 사용이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교사는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아동·생도⁸·학생을 교육하는 사람’⁹이다. 또한 교사는 윗사람에 해당하고 가족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본고의 분석 자료인 일본어 대사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대해 Slyusareva(2003)는 다음 (14)와 같이 밝히고 있다.

(14)生徒の對教師敬語の使用においては、「親しさ」という基準が敬語使用・不

⁸ ‘생도’라는 호칭은 일본의 학교 교육법에 따른 것이다. 즉, 초등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중등교육을 받는 중·고등학생은 ‘생도’로,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은 ‘학생’으로 호칭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다.

⁹ 『広辞苑』에서 인용하였다.

使用に大きく関係している。「ウチ・ソト」概念が示すように、「ウチ」の人には敬語を使わない。よって、生徒の対教師敬語使用の減少は、教師に対する彼らの親密さを表す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略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る。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경어 사용에는 ‘친근감’이라는 기준이 경어 사용과 미사용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 ‘안·밖’ 개념이 나타내듯이 ‘안’의 사람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경어 사용 감소는 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Slyusareva(2003:211)

일본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경어 사용 기준은 친근감이라는 것이다. 경어를 사용해야 하는 윗사람이라기 보다는 친구와 같은 친근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의 차이를 **【자료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안의 **굵은 글씨**는 일본어 대사와 그 한국어 자막을 표시한 것이다.

【자료 4】 일본어 대사의 반말이 한국어 자막에서 경어가 적용된 분석 자료

No	발화자	일본어 대사	한국어 자막
①	학생	これ全部整理した図書委員って 先生だったんじゃない?	이거 다 정리한 도서위원이 선생님이셨어요?
②	학생	先生になった きっかけは、 桜良さんだったんですね。	사쿠라 씨 말을 듣고 선생님이 되셨군요.
③	학생	やめないでね 、先生。	그만두지 마세요.
④	사쿠라	今日うちの両親 いないから。	오늘 부모님 집에 안 계셔.

【분석 결과 4】: **【자료 4】**의 ①을 직역하면 ‘선생(님)이었잖아?’가 된다. 그러나 자막에서는 한국의 경어 문화에 따라 ‘선생님이셨어요?’ (lit. 先生で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로 번역되어 있다. ②의 ‘先生になった’도 직역하면 ‘선생(님)이 된’이 된다. 그러나 자막에서는 ‘선생님이 되신’ (lit. 先生になられた)을 적용하여 한국의 경어 문화를 반영시키고 있다. ③의 ‘やめないでね’ 역시 직역하면 ‘그만두지 마’가 되어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자막에서는 한국의 경어 문화에 따라 ‘그만두지 마세요.’ (lit. お辞め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로 번역되어 있다. ①, ②, ③은 위의 (14)가 그 문화적 배경임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사에게 경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본의 언어문화가 자막에서 상실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④ 역시 위의 (13)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 대사 ‘両親いないから’는 직역하면 ‘양친 없어’가 된다. 그러나 자막에서는 한국의 경어 문화에 따라 ‘부모님 안 계서’ (lit. ご両親いらっしやらない)로 자막 처리되어 있다.

물론 자막에 직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뭇사람에게 사용하는 반말체를 그대로 자막에 적용시키는 것은 오히려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바람직한 번역이 될 수 없다. 다만 필자가 논하고자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막 번역에서 상실된 언어·문화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는 사족을 붙인다.

4. 나오기

한일 양국어는 통사적·형태론적으로 SOV 언어인 동시에, 형용사가 동사의 한 종류로 활용되며, 언어의 문법 기능이 접사로 의해 이루어지는 등 언어유형적으로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한일 양국어의 언어·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상이점 또한 현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본고에서 살펴본 역할어적 요소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대사에 출현한 역할어적 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자막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역할어의 정의와 기능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에 역할어의 지표가 되는 ‘문말표현’과 ‘일인칭 대명사’ 그리고 ‘경어 사용’에 나타나는 언어·문화적 상이점을 분석하였다. 역할어는 픽션 작품 속에서 인물상을 상기시키는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역할어적 요소가 풍부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자막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역할어적 요소의 ‘문말표현’과 ‘일인칭 대명사’는 한일 양국어의 어휘구조의 차이로 인해 자막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어 사용’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자막에서는 자국의 언어 문화를 적용시킨 결과 대사에 나타난 언어문화 요소가 상실되어 있었다.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동기나 요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와 같은 픽션에 흥미를 가져 일본어 학습을 시작하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증가는 물론 일본어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율 학습 자료로 픽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역할어적 요소의 분석 결과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에게 한일 양국어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参考文献】

- 다무라유리에(2015) 「일본만화작품의 한국어 대역본에 보이는 역할어 번역의 실태」 『일본어학연구』 43 호, pp.21-38.
- 사사히로코(2017) 「번역에 나타나는 역할어에 관한 고찰: ‘헤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영일·영한 번역물을 대상으로」 『일어일본학연구』 100 권 1 호, pp.67-83.
- 이윤옥(2020) 「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의 한국어 자막에 나타나는 이문화 요소」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5, pp.19-41. (近畿大学国際学部紀要).
- 이윤옥(2021) 「한일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필러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일본 영화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를 대상으로—」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No.6, pp.35-57. (近畿大学国際学部紀).
- 이재석 (2019) 「남성 일인칭 <ボク>와 <オレ>의 캐릭터 속성」 『일본연구』 81 권0 호, pp.177-200.
- 恩塚千代(2018) 「韓国の教科書における役割語の役割」 金水 敏 (編) 『役割語研究の展開』 くろしお出版, pp.51-70.
- 金水 敏(2003) 『ヴァーチャル日本語 役割語の謎』 岩波書店.
- 金水 敏 (編) (2011) 『役割語研究の地平』 くろしお出版.
- 金水 敏(2011) 「役割語と日本語教育」 『日本語教育』 150 号, pp.34-41.
- 金水 敏 (編) (2018) 『役割語研究の展開』 くろしお出版.
- 金田純平(2008) 「役割語: 文法論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論を横断する新概念 (特集・言語学最新キーワード 12)」 『月間言語』 37 卷 5 号, pp.84-89.
- 杉藤美代子(2011) 『音声文法』 くろしお出版.
- 水谷 修 (編) (1983) 『話ことばの表現』 筑摩書房.
- 鄭 惠先(2005) 「日本語と韓国語の役割語の対照: 対訳作品から見る翻訳上の問題を中心に」 『言語社会科学』 8 卷 1 号, pp.82-92.
- 鄭 惠先(2018) 「役割語を主題とした日韓翻訳の実践—課題遂行型の翻訳活動を通しての気づきとスキル向上—」 金水敏 (編) 『役割語研究の展開』 くろしお出版, pp.71-90.
- 白同善(1993) 「絶対敬語と相対敬語 日韓敬語法の比較」 『世界の日本語教育』 3, pp.195-207.
- 山口治彦(2007) 「役割語の個別性と普遍性—日英の対照を通して—」 金水 敏 (編) 『役割語研究の地平』 くろしお出版, pp.9-25.
- Elena Slyusareva(2003) 「学校における生徒の対教師敬語使用—新潟市とその周辺にある小学校・中学校・高等学校の調査結果から—」 『現代社会文化研究』 No.26, pp.195-213.
- 新村出 (1998) 『広辞苑』 第 5 版、岩村書店.